

FDA, 식품의 방사선 조사 규제 완화

외양·영양상태 변화 때만 표기토록 ... 현재는 조사사실 명기 규정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방사능을 조사한 식품에 엄격하게 적용해온 상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4월3일 공개했다.

FDA가 여론 수렴을 위해 웹사이트에 올린 개정안은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X-레이나 전자파로 조사한 모든 식품의 상표에 반드시 전자파 조사 사실을 명기토록 해오던 것을 <방사능 처리 후 외양이 변했거나 영양상에 변화가 생겼는지 혹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계속 상표에 표시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FDA는 1986년부터 <방사능 조사 식품> 상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방사능 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식품업계의 로비 등에 따라 2002년 <농산물안전농촌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식품의 상표에 <방사능에 조사했다>는 표기 대신 <멸균 처리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FDA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FDA는 해당 식품업계 등으로부터 상표 용어를 바꾸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단 한건도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일과 야채, 달걀 등 일부 신선식품에 적용되는 <방사능 라벨링>이 해당식품의 10%에서 1%만 상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DA는 방사능 상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5>